

韓國 漢字語彙 形態素 中の 同音類義語 相・狀・象・像 辨析

김수정*

目 次

- I. 서론
- II. 相・狀・象・像을 형태소로 갖는 한국어 어휘
 - 1. 相・狀과 한국어 어휘
 - 2. 象・像과 한국어 어휘
- III. 相・狀・象・像과 관련된 사전 표기와 의미정의
 - 1. 異形 중복 표기에 대한 규범화의 필요성
 - 2. 명사 뒤에 결합된 相・狀・像에 대한 의미 규범화의 필요성
- IV.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類義語이자 발음이 같은 相・狀・象・像이 현대 한국어 어휘의 형태소로 쓰일 때, 이들 한자간의 의미 자질을 분별하여 어휘 의미의 분별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중심 목적이 있다.

現象・現像・現狀에서의 象・像・狀은 모두 ‘현상’으로 발음되는 어휘들에서 ‘형상’이라는 의미로 활용되고 있는가 하면,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표제어 形相・形狀・形象(/形像)의 경우는 발음이 모두 ‘형상’이며 의미도 모두 ‘형상’이나 ‘모양·상

* 高麗大 中國學研究所 Post-doc / E-mail : dansill@hanmail.net

태이다. 뿐만 아니라 ‘모양’·‘형상’을 뜻하는 다른 어휘들에 사용된 ‘면상03(面相/面像)’·‘사상10(事狀/事相)’·‘사상20(寫象/寫像)’·‘심상04(心象/心像)’·‘형상04(形象/形像)’·‘상모01(相貌/狀貌)’ 등은 하나의 표제어에 두 개의 한자 표기가 존재하거나, ‘세계-상(世界像)’·‘인간-상(人間像)’·‘여성-상(女性像)’ 등은 ‘像’을 사용하고 ‘사회-상(社會相)’·‘시대-상(時代相)’ 등은 ‘相’을 표기하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 부분들은 한국 한자어에 존재하는 유의관계 한자 사용의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요망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相·象·像·狀이 다른 어휘와 결합되어 ‘모습’·‘형태’·‘상태’를 나타내는 한국 한자어 항목을 조사하고 이 한자어들이 과연 의미 자질상의 변별력을 지니는지, 지닌다면 어떻게 그 차이를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漢字 類義語간의 의미·용법에 대해서는 기존 고대 중국어의 어휘론 연구에서 오랜 연구 성과가 축적된 바 있으며, 현대 중국어에서도 기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유의어 연구를 보다 심화시켜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본 연구의 고찰 과정에서 참고하였으며 관련 어휘의 일본측 사전적 어휘도 부분적으로 참고하였다. 본고의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相·狀·象·像의 의미 분별을 바탕으로 ‘實狀·實相·實像’·‘心狀·心相·心象/心像’·‘險狀·險相·險像’·‘現象·現像·現狀’·‘形相·形狀·形象(/形像)’의 의미를 변별하였다.

둘째, 표제어 한자 중복표기와 관련하여, 『표준국어』의 ‘면상03(面相/面像)’·‘사상10(事狀/事相)’·‘사상20(寫象/寫像)’·‘심상04(心象/心像)’·‘형상04(形象/形像)’·‘상모01(相貌/狀貌)’ 등은 ‘面相’·‘事狀’·‘心象’·‘形象’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寫象’과 ‘寫像’으로 항목을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相·狀·像이 접사적 용법으로 쓰인 것과 관련하여서는 말뭉치 자료에 의거해 ‘世界像’·‘人間像’·‘女性像/男性像’의 의미향을 가치공정적 서술에서 가치중립적 서술로 조정하고, ‘社會相’·‘時代相’의 ‘相’과 의미자질을 변별하고자 하였으며 『연세한국어』에서 든 용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가 한국어 어휘의 형태소로 쓰인 同音類義語 相·狀·象·像의 분별작업을 통해 한국 한자어 어휘에 사용된 同音類義語 형태소의 이해도와 변별성을 제고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 제 어 한국 한자어휘, 동음유의어, 相, 象, 像, 狀, 의미자질, 한자형태소

I. 서론

의미상으로 유사하면서도 미세한 차이를 보이는 유의어들의 의미차이 및 용법 분석은 한국어 어휘 이해를 심화하고 어휘 사용을 정밀히 하는 데 중요한 작업에 해당한다. 본 논문은 類義語이자 발음이 같은 相·狀·象·像이 현대 한국어 어휘의 형태소¹⁾로 쓰일 때, 이들 한자간의 의미 차이를 분별하여 어휘 의미의 분별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중심 목적이 있다.

한국어에서의 유의어 연구는 固有語間 類義語²⁾ 및 固有語와 漢字語間 類義語 연구³⁾ 등이 중심을 이루고 漢字語間 유의어 비교 연구는 同音異義語 중심의 연구 경향을 보이며 연구단위는 어휘 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된다.⁴⁾ 이에 비해 한국어 어휘에 형태소로 사용된 한자를 분석하는 경우는 드물며⁵⁾ 同音類義間 漢字語나 同音類義 漢字語 形態素의 비교·분석은 더욱 드문 것으로 조사된다.

한편 漢字間 類義語의 의미·용법을 비교하는 논의는 고대 중국어 어휘 연구 분야에서 오랜 연구 성과가 축적된 바⁶⁾ 있으며, 현대 중국어

1) 한자어 구성 단위에 대해서는 논의가 다양한 것으로 조사된다. 본고에서는 한문의 통사론적 특징을 한국 한자어 어휘 분석에 반영하여, 葡萄, 蒼蒼과 같이 한자어의 개별 한자를 나누었을 때 개별 한자의 의미 분별이 발생하지 않는 한자어는 단일어로 보아 어휘 전체를 하나의 형태소로 파악하고, 父母[어머니와 아버지], 教授[가르치고 전수함], 美人[아름다운 사람], 讀書[책을 읽음] 등과 같이 개별 한자가 어휘 내부에서 구체적이고 변별적인 의미 역할을 하는 어휘를 복합어로 보아 父·母·教·授·美·人·讀·書를 각각 형태소로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최은규(1985) 등 참조.

3) 문금현(1989) 등 참조.

4) 문금현(2004) 참조.

5) 김양진(2013)은 同字同義異音 漢字語를 분석한 바 있고, 노명희(2005/2007)·양명희(2008)는 접사성 한자어를 분석한 바 있다.

6) 본고에서의 ‘類義語’ 개념은 어휘 차원의 개념으로 중국에서의 ‘同義語’에 상당하나 개념사용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중국의 관련 내용을 언급할 때에도 ‘類義語’라는 용

어휘연구에서도 지속·심화되는 상황이다. 類義 관계 漢字語는 중국어의 범주에서 논의될 뿐 아니라 韓 中, 中 日 간 한자 어휘의 비교연구로도 확대 진행되고 있다.⁷⁾ 이 부분의 연구 성과는 한국어 어휘 속의 類義關係 漢字를 분석하는 데 참조될 수 있다.

현대 한국어의 문자표기는 발음표기를 중심으로 하기에 굳이 한자를 노출시킬 필요가 없다. 발음표기 중심의 한국어 사용과정에서는, 유의관계의 한자가 어휘를 구성할 때 발음이 다른 경우 사용상의 불편함이 없다. 가령 家도 ‘집’의 의미이고 舍도 ‘집’의 의미이지만 한국어 어휘를 구성할 때는 草家, 廢家, 官舍, 畜舍 등으로 다른 발음, 다른 복합어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家와 舍간의 의미차이에 대한 인식이 없더라도 사용에 별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 이에 반해 유의관계의 한자가 다른 어휘와 결합해 서로 다른 복합어로 쓰일 때는 종종 사용상의 혼란으로 인한 구분의 필요성이 가중된다.

한국어 어휘의 형태소로 쓰인 相·狀·象·像은 ‘모습’ ‘형태’ ‘상태’의 의미로 활용되며 ‘상[sʰaŋ]’으로 발음되는 同音類義語로, 이 형태소로 구성된 동음유의어들도 유의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가령 現象·現像·現狀은 ‘현상[hyʌnsʰaŋ]’으로 발음되고 ‘나타난 형상·모습’의 의미로 활용되며 形相·形狀·形象(/形像) 또한 모두 ‘형상[hyʌŋsʰaŋ]’으로 발음되고 ‘형상’·‘모양·상태’의 의미로 활용되어 구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국어』로 약칭)에서 相·狀·象·像을 조합해 ‘모양’·‘형상’을 뜻하는 단어 가운데 ‘면상03(面相/面像)’·‘사상10(事狀/事相)’·‘사상20(寫象/寫像)’·‘심상04(心象/心像)’·‘형상04(形

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7) 이광호(1998)·廉光虎·位靑(2005) 등 참조.

象/形像)·‘상모01(相貌/狀貌)’ 등은 하나의 표제어에 두 개의 한자 표기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 부분은 相·狀·象·像의 의미자질이 구체적으로 분별되지 못한 데서 발생한 현상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른 동일 표제어의 한자표기 규범화의 필요성이 아울러 제기된다.

그 외 접사적 성격⁸⁾으로 相·狀·像이 결합된 어휘간의 의미 분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가령 ‘세계-상(世界像)’ ‘인간-상(人間像)’·‘여성-상(女性像)’ 등에서는 ‘像’을 사용하고 ‘사회-상(社會相)’·‘시대-상(時代相)’ 등에서는 ‘相’을 표기하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표기차이가 사전의 정의나 실제 언어 사용에서 변별될 수 있는가의 여부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相·狀·象·像 네 漢字가 한국어 어휘의 형태소로 쓰여 ‘모습’ ‘형태’ ‘상태’를 나타낼 때 각각 어떤 변별성을 지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논의 대상은 『표준국어』에 相·狀·象·像이 포함된 표제어 가운데 ‘모양’·‘모습’·‘상태’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를 중심으로 하였다.⁹⁾ 논의 과정은 먼저 相·狀·象·像이 고대 및 현대중국어에서 운용되는 양상을 개괄하고 이를 참조로 한국어 어휘에서 상기 네 한자가 형태소로 사용된 어휘를 일별함으로써 中·韓 사용양상의 同異點을 살피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어휘의 형태소로 쓰인 同音類義 漢字語의 분별작업을 통해 한국어 어휘의 이해도와 변별력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8) 一音節 漢字語가 다른 漢字語와 결합될 때의 어법적 성격과 기능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조사된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 따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일단 접사적 성격·기능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9) 『표준국어』의 어휘를 형태소별로 종합·수록해둔 『우리말 형태소 사전』(백문식(2012))에 제시된 相·狀·象·像 항목도 아울러 참고하였다.

II. 相·狀 象·像을 형태소로 갖는 한국어 어휘

相·象(·像) 狀을 포함한 현대 한국어 어휘의미는 고대 중국어에서의 전형적인 의미변별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현대 중국어에서 象 및 象으로부터 파생된 像의 용례 구분은 한국 한자어에서 象·像을 구분하는 데 일정한 참고 가치를 지닌다.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해 고대 중국어와 현대 중국어로 나누어 대략적인 의미 분별 내용을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한국어 어휘에서 추출할 수 있는 비교적 특징적인 相·狀·象·像의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1. 相·狀과 한국어 어휘

한국어에서 相·狀·象·像이 결합된 어휘 가운데는 고대 중국어의 의미가 반영된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대 중국어의 유의어 相·象·狀 사이의 의미자질 변별이 유용한 참고가치를 지닌다. 고대 중국어의 유의어 연구에서는 ‘사물이 바깥으로 드러남’을 뜻하는 의미 영역에서의 相·象·狀이 形·況 등과 함께 비교·분석된 바 있다.¹⁰⁾

‘모양’의 의미일 때 去聲으로 발음되는 相은 ‘자세히 눈[目]으로 (나무[木]를) 살펴보다’라는 의미에서 ‘자세히 살피다’·‘관찰하다’는 본뜻을 지닌다. 여기에서 의미가引伸되어 사물의 발전양상을 관찰하여 판단을 내린다는 의미로 ‘점쳐 보다’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술목구조의 ‘相馬’·‘相宅’ ‘相面’ 등이 그에 해당한다. 또 ‘관찰하는’ 대상인 사람이나 사물의 ‘容貌’·‘모습’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 경우 주로 관찰자의 눈에 들어오는 ‘모습’에 대한 시각적 반영인 까닭에 사물의 단순한 외형

10) 이하의 내용은 王鳳陽(1993/2011) 480~481면 참조.

적 모습뿐 아니라 사물에서 풍겨나는 자태나 정신적 풍모를 아우르기도 한다. 불교에서는 시각 등의 감각으로 관찰되는 모습 전반을 광범위하게 가리키는 데 쓰여 왔으며 오늘날에는 물리학·지리학 전문 용어에 사용되어 시각적으로 관찰되는 물리적인 상태·모습을 가리키기도 한다.

『표준국어』에서 相이 ‘모습’·‘상태’의 의미로 쓰인 어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1>

<p>사람의 얼굴, 겉모습</p> <p>↓</p> <p>관찰하여 그 특성이나 길흉을 알 수 있는 사람이나 사물의 容貌·모습 사물의 외관</p>	相-1-1	상격03(相格), 상모01(相貌/狀貌), 상통01(相), 상·관04(相-), 상형02(相形)
	相-1-2	굽-상(相), 땀-상(相), 죽(음)-상(相), 나타-상(相), 말-상(相), 소-상01(相), 아귀-상(餓鬼相), 얼굴-상(相), 여우-상(相), 우거자-상(相), 울-상(相), 주걱-상(相), 채반-상(盤相)
	相-1-3	고상10(高相), 골상(骨相), 관상04(觀相), 궁상05(窮相), 귀상(貴相), 기상04(氣相)①, 길상02(吉相), 달상02(達相), 면상03(面相/面像), 묘상01(妙相), 반상10(叛相/反相), 복상08(福相), 불상03(佛相), 빈궁-상(貧窮相), 빈상01(貧相), 사상05(死相)②, 악상01(惡相), 오만-상(五萬相), 추상13(醜相), 험상02(險相), 혈상(血相), 남상02(男相)⇔여상01(女相), 이상11(異相)①, 인상01(人相), 독사-상(毒蛇相), 우상05(愚相)②, 흉상02(凶相/兇相)
	相-1-4	점상02(占相), 수상02(手相), 족상(足相), 필상-학(筆相學)[=서상-학(書相學)], 인상04(印相), 지상03(地相)①
	相-1-5	만물-상01(萬物相), 산상02(山相), 산용-수상(山容水相), 수상19(樹相), 임상01(林相), 지상03(地相)②, 천해-상(淺海相), 피상01(皮相), [모상05(模相)]
<p>대상 전반에 대해 전체적이고 표면적으로 관찰되는 양상</p>	相-2-1	고민-상(苦悶相), 낙후-상(落後相), 난맥-상(亂脈相), 발악-상(發惡相), 부패-상(腐敗相), 분열-상(分裂相), 상극-상(相剋相), 수난-상(受難相), 암흑-상(暗黑相), 잔악-상(殘惡相), 죄악-상(罪惡相), 참혹-상(慘酷相), 추악-상(醜惡相), 침략-상(侵略相), 타락-상(墮落相), 패망-상(敗亡相), 포악-상(暴惡相), 혼란-상(混亂相)
	相-2-2	발전-상(發展相), 부흥-상(復興相), 약진-상(躍進相), 위맹-상(威猛相), 활약-상(活躍相)
	相-2-3	문화-상(文化相), 사회-상(社會相), 생활-상(生活相), 시대-상(時代相), 세상02(世相)
	相-2-4	변상03(變相)①, 실상02(實相), 양상08(樣相), 서상05(瑞相), 위상02(位相)①, 사상05(死相)①

【불교】 인도어 Samjina의 의역으로 볼 수 있 는 모습(象狀)과 감 각되는 생각(想)을 아우르는 말	相-3	가상03(假相:현실 세계), 공상05(共相), 공상09(空相), 동상05(同相), 멸상(滅相), 명상03(名相), 무상05(無相), 법상02(法相), 변상03(變相)②, 본상01(本相), 불-공상(不共相) ¹¹⁾ , 변상03(變相)②, 사상02(四相), 상호06(相好), 색상01(色相)②, 생상01(生相), 성상03(性相), 성상01(成相), 쇠상(衰相), 심상02(心相), 아상01(我相), 애경-상(愛敬相), 업상(業相)②, 열반상01(涅槃相), 왕상03(往相), 유상01(有相), 이상11(異相)②③, 인상05(印相), 일상01(一相), 자상03(自相), 전법륜-상(轉法輪相), 정상12(頂相), 지상11(智相), 지정-상(智淨相), 체상02(體相), 천폭륜-상(千輻輪相), 태태-상(托胎相), 향마-상(降魔相), 행상02(行相), 환상01(幻相)
【생물】 각 종류(와 모양)	相-4	극상02(極相), 동물-상(動物相), 미생물-상(微生物相), 생물-상(生物相), 식물-상(植物相), 발육-상(發育相)
【물리】 물리·화학적 성질 이 같고, 명확한 물 리적 경계에 의하여 구별된 물질계의 양상.	相-5	고체-상[固體相][=고상03(固相)], 기체-상[氣體相][=기상05(氣相)], 액체-상[液體相] 결정-상(結晶相), 분산-상(分散相), 액체-상(液體相), 용체-상(溶體相), 유리-상(遊離相), 이동-상(移動相), 정상13(晶相), 정지-상01(停止相), 중간-상01(中間相), 핵상(核相), 단상01(單相), 복상10(復相), 다상01(多相), 전상09(轉相)
【지리】 지층의 구조, 구성 암석, 화석 따위에 의하여 인접한 다른 지층과 구분되는 양상	相-6	대륙붕-상(大陸棚相), 변성-상(變成相), 암상09(巖相), 퇴적-상(堆積相), 화성-상(火成相), 지역-상(地域相), 층상02(層相)
【언어】 어법의 태	相-7	동작-상(動作相), 시상08(時相), 예정-상(豫定相), 완료-상(完了相), 음성01(音相), 중상02(中相), 진행-상(進行相)
【철학】 에이도스, 본질	相-8	형상03(形相), 형상-학(形相學)
【미술】 (색 자체가 갖는) 고유의 특성	相-9	색상01(色相)
【천문】 달 표면의 빛나는 부분이 변하는 모양	相-10	월상01(月相)
기타(미구분)	相-11	단면-상(斷面相)

11) ‘불-공상(不共相)’은 ‘공상(共相)’과 대를 이루는 말로 ‘다른 것과 공통되지 않는, 자기만의 모습’을 가리키므로 ‘불공’과 ‘상’이 결합된 ‘불공-상(不共相)’의 구조로 분석되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相이 지닌 ‘얼굴의 형태나 얼굴에 나타난 모습’의 의미는 象 像·狀과 가장 뚜렷하게 변별되는 의미에 해당한다. 이 경우 한자어 뿐 아니라 순우리말 형용사·명사 어휘와도 자주 결합되는 특징을 보이며(<相-1-2>), 접사처럼 쓰이기도 한다. 의미 범위로서의 관찰 대상은 ‘사람의 얼굴’을 주로 가리키나 관찰하여 길흉 따위를 점칠 수 있는 사람 사물의 容貌·모습도 가리킨다(<相-1-4>).

相을 형태소로 하는 어휘 가운데 그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유형은 바로 불교 용어이다(<相-4>) 인간의 감각으로 감지되는 모습을 주로 가리키며 그 모습이 그림으로 형상화된 것까지를 포괄하기도 한다(<지옥·변상(地獄變相), 정상12(頂相)>). 한편 현대에 들어서는 물리·화학 지리·언어·철학·미술·천문 분야의 특정 양상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에 사용되기도 한다.

相의 의미 범위는 ‘얼굴모습’에서부터 전문 학술 용어에 활용된 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면서도 일정한 특징을 지닌다. 이들 용례에서 相이 지닌 유사 의미 내지 연관 의미를 추출하자면, 주로 육안이나 감각으로 관찰되기 어려운 본질이나 본래 모습이 ‘감지될 수 있는 형태’로 표면에 顯現한 일정한 양상·모습에 중점이 있으며, 국부적이기 보다는 대상 사물 전반에 중점이 있다.

한편 狀은 고대 중국어에서 사람에 쓰일 경우 外觀 뿐 아니라 행동거지·움직임 또는 표정·태도를 아울러 나타내며, 사물에 쓰일 경우 ‘千變萬狀’과 같이 수없이 변화되는 각종 모습을 가리킨다. 후자의 의미로 인해 狀은 동태적인 사물 경황을 묘사하는 동사로도 쓰였다. 「莊子·德充符」의 “自狀其過”에 대해 郭象이 “自陳其過”라고 註釋하였는데, 이는 狀이 ‘형상·모습·상황을 형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동사 용법으로

쓰인 예에 해당한다. 그 외에 사물의 모습 情態를 묘사·서술하는 데 쓰이기도 하며 상급자에게 事實을 陳述하는 公文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 경우 狀자가 지닌 ‘서술성’ ‘묘사성’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대 중국어에서 ‘狀’은 모양 모습을 나타내는 조사의 용법으로 연구된 바 있다. 張誼生(2010)은 ‘X狀’구조에서의 狀이 ‘X樣’·‘X式’·‘X型’·‘X相’과 함께 정황을 묘사하는 조사로 사용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아울러 조합 단위도 ‘걸신들린 모습’[饑狀] ‘어병한 모습’[呆狀] ‘고통스러운 모습’[痛苦狀] ‘답답한 모습’[鬱悶狀]·‘부끄러워하는 모습’[慚愧狀]·‘기뻐하는 모습’[歡天喜地狀]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듯한 모습’[若有所思狀] ‘손을 내밀어 악수하려는 모습’[他伸出手作要握手狀]”에서와 같이 1~2音節 어휘 뿐 아니라 4音節 이상의 성어·어구와도 결합되는 등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인 특성을 띠며 결합 단위의 수량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¹²⁾ 이는 狀이 현대 중국어에서 相 象 像과 구분되는 ‘동태적인 사물 묘사’의 의미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한국어 어휘에서의 狀은, 중세한국어에서는 중국어 발음 [zhuàng]과 유사한 [tsaŋ;dzaŋ]으로 발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한국어에서는 賞狀[sʰaŋdzaŋ]·답장[taɸtsaŋ]에서와 같이 ‘문서’·‘편지’로 쓰일 때 [tsaŋ;dzaŋ]으로 발음하되, ‘모습’·‘상황’의 의미일 경우 俗音[sʰaŋ]으로 구분해 발음하고 있다. 다만 『新字典』 등에서 狀의 발음을 ‘장’[tsaŋ;dzaŋ]으로만 표기한 것으로 미루어 狀의 俗音이었던 [sʰaŋ] 발음이 표준 발음으로 지정된 시점은 현대 이후로 추정된다.

『표준국어』에서 狀이 ‘모습’·‘상태’를 가리키는 형태소로 쓰인 어휘를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12) 상기 예문은 張誼生(2008), 27~34면 참조.

<표 2>

사물의 구체 형상	狀-1	사물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형상(形狀)	가스상 성운(gas狀星雲)·간상-체(杆狀體)·갑상02(甲狀)·계단-상(階段狀)·관상01(冠狀)·관상03(管狀)·괴상05(塊狀)·교상05(膠狀)·구상03(臼狀)·구상06(球狀)·구상07(鉤狀)·궁상01(弓狀)·균상(菌狀)·난상01(卵狀), 두상02(頭狀)·렌즈상-층(lens狀層)·밴드상-운(band狀雲)·선상02(扇狀)·선상07(線狀)·성상04(星狀)·쇄상(鎖狀)·강모-상(剛毛狀)·거치-상(鋸齒狀)·수상18(樹狀)·수상23(穗狀)·연쇄-상(連鎖狀)·염주-상(念珠狀)·엽상(葉狀)·와상03(渦狀)·와우각-상02(蝸牛殼狀)·요상05(橈狀)·용상04(龍狀)·우상02(羽狀)·유상05(乳狀)·익상(翼狀)·장상07(掌狀)·전상06(箭狀)·점상03(點狀)·제상02(梯狀)·제상05(蹄狀)·젤라틴상 브로민화물(gelatin狀bromine化合物)·종상06(鐘狀)·주상09(柱狀)·줄치-상(櫛齒狀)·지방-상(脂肪狀)·차상01(叉狀)·책상02(柵狀)·초상06(韜狀)·치상02(齒狀)·파문-상(波紋狀)·파상01(波狀)·판상02(板狀)·패각-상(貝殼狀)·포도-상(葡萄狀)·해면-상(海綿狀)······cf)고무상 유향(--狀疏黃)
상황, 형편 (진행 과정이나 배경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상황)	狀-2-1	진술상황의 대상 + 狀	객상02(客狀), 경상02(景狀), 공상04(功狀), 범상03(犯狀), 실상01(實狀), 죄상(罪狀), 국상01(國狀), 근상01(近狀), 사상10(事狀/事相), 산상04(產狀), 생육-상(生育狀), 성상02(性狀)②, 성상07(省狀), 속상02(俗狀), 시상06(時狀), 심상01(心狀), 연상03(年狀), 원상01(原狀), 전상07(戰狀), 증상01(症狀), 행상01(行狀)
	狀-2-2	상황진행에 대한 형용 + 狀	간상01(奸狀), 고상07(苦狀), 괴상03(怪狀), 궁상04(窮狀), 만상03(萬狀)[고초-만상(苦楚萬狀)], 변상02(變狀), 사상04(死狀), 수상10(殊狀), 이상10(異狀), 증상-맞다(憎狀--), 참상03(慘狀), 험상01(險狀), 흉상01(凶狀/兇狀) 문란-상(紊亂狀), 불행-상(不幸狀), 비참-상(悲慘狀)
	狀-2-3	상황	명상01(名狀), 상세03(狀勢), 상태01(狀態), 상황02(狀況), 정상08(情狀), 징상01(徵狀)
	狀-2-4	정황에 대한 구체 내용진술	구상01(口狀)①, 백상01(白狀), 무상-하다03(無狀--), 진상07(陳狀)
전문용어	狀-3-1	【지리】	암상08(巖狀) 【지리】 , 층상01(層狀)
	狀-3-2	【생물】	생장-상(生長狀)
	狀-3-3	【예술】	끄실-상(--狀), 나비-상(--狀), 앓을-상(--狀)

狀이 구체 사물 명사와 결합하여 ‘A狀’의 구조를 지닐 경우, ‘(어떤 사물이) A와 같은 구체적인 형상을 지님’을 나타낸다([狀-1]). 이때 결합되는 구체명사는 한자어인 경우가 가장 많고 외래어(<가스상 성운(gas狀星雲), 렌즈상-층(lens狀層), 밴드상-운(band狀雲), 젤라틴상 브로민화물(gelatin狀bromine化物)>)인 경우도 보인다. 반면 相과는 달리 고유어(<고무상 유황(--狀硫黃)>)와는 거의 결합되지 않았다. 의미상으로는 사물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형태를 묘사하는 특징을 지닌다.

한편 狀이 명사성 성분(드물게 동사성 성분)과 결합하여 ‘B狀’의 구조를 지닐 경우, B는 주로 진술하고자 하는 상황의 대상을 가리키며 ‘B狀’은 ‘B와 관련된 상황’으로 풀이된다([狀-2-1]). 이때 狀이 나타내는 상황은 動的이며 변화가능성 내지 진행중임을 암시하는 특징을 지니는데, 이 특징은 [相-2]가 대상 전반에 전체적으로 관찰되는 양상을 靜的으로 나타내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그 외 B의 상황을 형용하는 어휘 [B']와 결합한 구조[‘B’狀]([狀-2-2])를 지니기도 하는데, [狀-2-1]의 의미와 연관선상에서 파악하면 모종의 상황이 동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습을 형용한 것으로 보아 대상 전반을 전체적 구도에서 靜的으로 파악하는 특징을 지닌 [相-2-1]과 분별해볼 수 있을 듯하다. 이러한 狀의 진술성·진행 과정성은 [狀-2-4] 어휘군이 지닌 의미항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가령, ‘진상07(陳狀)’은 ‘일의 사정이나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狀이 지닌 ‘일의 진행 경과’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때의 진행 경과를 글로 적어 문서화한 것이 바로 ‘문서 장’[狀]이 되므로, 狀의 ‘모습·상황 상’과 ‘문서 장’간에 상호연관성이 존재함을 유추할 수 있다.

현대 중국어에서 狀은 動的 형상에 대한 묘사적 기능이 뚜렷하며 다른

어휘 구절과의 결합력도 왕성한 데 비해 한국어에서는 동사성 어휘나 구절과 잘 결합되지 않으며 결합 범위도 매우 제한적이다.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데 쓰인 경우는 [狀-3-3]의 ‘끄실-상(--狀), 앓을-상(--狀)’ 정도이며, 이 어휘도 전통 놀이에서 사용되던 전문용어에 속한다.

한편 狀이 전문용어에 사용되는 예는 相에 비해 현저히 적을 뿐 아니라 분별성도 미약하다. 가령 『표준국어』에서는 ‘생장-상(生長狀) 【생물】’을 표제어로 제시하고 이를 ‘발육-상(發育相) 【생물】’과 같은 것으로 처리하였는데, 이 경우 관찰된 생물의 발육 모습을 가리키는 ‘發育相’에 비해, ‘生長狀’은 생물이 성장하는 모습의 ‘동태성’이 강조될 수 있으나 실제 용례상 이미 狀과 相의 의미변별이 불분명하다.

2. 象·像과 한국어 어휘

고대 중국어에서 象은 객관적인 사물의 모습을 가리키나 이때 사물의 모습은 고정적이지 않고 특정 조건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대표적으로 각종 天體의 모습인, 氣象·星象·曆象 등에서 주로 象자를 사용하는 것이 그에 해당한다. 옛 사람들은 天體의 모습이 하늘이 인간세상 변화를 계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天體의 모습을 聖人이 그대로 본뜬다는 데에서 象이 동사로 쓰일 때는 ‘본뜨다’ ‘모방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한편 고대의 占卜 행위는 각 象에 구체적인 형식을 부여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습이 兆象이다. 이 의미가 확대되어 각종 사물에 대한 인공적인 복제품도 象이라 하게 되었다. 이때의 象은 繪畫, 刺繡, 彫刻, 鑄物 등으로 복제된 것을 모두 가리킬 수 있다.

象의 의미항이 많아지자 戰國時代 이후에는 象과 구분되는 像자를

따로 만들어 ‘본뜨다’의 동사적 용법 및 ‘본뜬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 것’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였으나, 段玉裁(1735~1815)가 『說文解字注』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학자들이 象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像자의 의미 분별성이 상실되었다.¹³⁾

현대 중국어의 簡化字 政策에서도 象·像의 구분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1964년 「簡化字總表」에서 像자를 象자의 繁體字로 규정해 象자 하나로 통합하였지만 “象과 像의 뜻이 혼동될 수 있을 때는 像은 여전히 像으로 사용한다.”는 부주를 달아둠으로써 혼선의 여지를 남겨두었고 1986년 「簡化字總表」에서는 像을 規範字로 새로이 지정해 象자로부터 독립시킴으로써 구분상의 논란을 가중하였다. 특히 그 후에 출판된 몇몇 권위 있는 사전들이 「簡化字總表」에서 제시한 원칙을 따르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실제 언어생활에서 원칙과 다른 사용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재규범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1년 中國 國家語言文字工作委員會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여, 象·像이 명사로 쓰인 어휘 가운데, 자연계·사람·사물의 형태나 모습은 象을 사용하며 모방하거나 본떠서 만든 사람이나 사물의 형상 및 빛이 반사되거나 굴절되어 만들어진 원 사물과 동일·유사한 모습에는 像을 사용한다고 정의하고 아울러 대표적인 어휘표기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¹⁴⁾ 기본 원칙 및 대표적인 예시를 중심으로 한 까닭에 실제 언어생활에서의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 여전히 논란이 적지 않은 상태이지만,¹⁵⁾ 2001년 國家語言文字工作委員會의 기본 규정은 한국어 어

13) 許慎 著, 段玉裁注, 『說文解字注』卷八上, 「人部」, “像, 似也(段注: 各本作象也. 今依『韻會』所據本正. ……『繫辭』曰: ‘爻也者, 效此者也; 象也者, 像此者也.’ ……蓋象爲古文, 聖人以像釋之. ……凡形像·圖像·想像字皆當從人, 而學者多作象, 象行而像廢矣). 從人, 象聲. 讀若養字之養.”

14) 全國科學技術名詞審定委員會·國家語言文字工作委員會(2001), 13~14면 참조.

회에서 象·像을 구분할 때 참조될 수 있다.

이상의 고대와 현대 중국어에서의 의미변별을 참조하여 象 像이 한국어 어휘에서 ‘모습’·‘모양’의 의미로 쓰인 용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象의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¹⁶⁾

천체·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	象-1-1	하늘의 모습(天體)	사상03(四象), 상한-의(象限儀), 성상05(星象), 출상02(出象), 현상01(玄象), 현상08(懸象)
	象-1-2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	건상03(乾象), 관상05(觀象), 기상06(氣象), 역상03(曆象), 천상04(天象)[cf 천상-의(天象儀)]
	象-1-3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	수상04(水象), 지상04(地象), 해상05(海象), 화상01(化象)
	象-1-4	길흉을 나타내는 상	길상04(吉象), 괘상(卦象), 역상01(易象), 팔상02(八象), 효상01(爻象) ^②
사물의 윤곽	象-2	지각할 수 있는 사물의 형태나 성질	구상05(具象) ^① , 대상11(對象), 만상05(萬象), 맥상(脈象), 물상01(物象), 사상12(事象), 사상17(捨象), 사상20(寫象/寫像) ¹⁷⁾ , 상석05(象石), 상외02(象外), 상징(象徵), 심상04(心象/心像), 외상05(外象), 원상02(原象), 인상06(印象), 전상02(全象), 천태만상(千態萬象), 추상01(抽象), 표상(表象), 현상04(現象), 형상04(形象/形像), 환상06(環象)
얼굴	象-3-1	얼굴, 용모	상공-하다02(象恭--), 효상01(爻象) ^①
	象-3-2	(얼굴관련)그림	수상16(壽象)

한국어 어휘에서 象은 주로 천체 및 땅·바다와 같은 대자연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象-1-1~3]). 과거에는 자연

15) 劉世餘·王學凱(2006), 93~94면, 李智(2008), 67~68면 참조.

16) 관련 어휘 가운데 ‘안상05(眼象)[안상-연(眼象緣)]’은 『건축』 전문용어로 象의 의미가 불명확해 <표>에 수록하지 않았다.

17) 일본어 사전에는 寫像이 mapping image의 의미로 수록되고 寫象은 수록되지 않았다.

에서 일어나는 변화나 특징적 모습을 통해吉凶을 占쳤으므로 그와 관련한 어휘에도 象([象-1-4])이 사용되었다. 象은 또한 지각할 수 있는 사물의 형태나 성질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때 ‘지각할 수 있는’ 범위는 시각·촉각 등의 육체 감각 뿐 아니라 심리적 감각까지 포함된다([象-2]). 지각 대상(사물 및 대상범위)을 가리키는 어휘와 造語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狀-1]과 같이 구체적 형태를 가리키는 어휘와는 잘 결합되지 않는다. 그 외 象으로 사람의 얼굴 외모 또는 얼굴을 그린 그림을 가리키는 용례가 있는데([象-3-1~2]), 이는 『書經·堯典』(“象恭滔天”)에서부터 확인되나 현대 어휘용례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다.

한편 像의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실제 재료를 사용해 만들거나 그려낸 실물 형상	像-1-1	만든 형상	감상06(龕像), 건칠-상(乾漆像), 쾌상03(跪像), 금상03(金像), 기념-상01(紀念像), 단상04(檀像), 도금-상(鍍金像), 동상09(銅像), 모상06(模像), 목상02(木像), 석고-상(石膏像), 소상12(素像), 소상15(塑像), 주상13(鑄像), 진흙-상(---像), 돌-상03(-像), 통나무-상(---像), 철상03(鐵像), 거인-상(巨人像), 기마-상(騎馬像), 나부-상(裸婦像), 나체-상(裸體像), 나한-상(羅漢像), 남상03(男像), 남성-상(男性像)①, 단신-상(單身像), 독립-상(獨立像), 두상04(頭像), 등신-상(等身像), 등-입상(等立像), 면상05(面像), 모신-상(母神像), 목각-상(木刻像), 무관-상(武官像), 문관-상(文官像), 미륵-상(彌勒像), 반가-상(半跏像), 반신-상(半身像), 보살-상(菩薩像), 본존-상(本尊像), 불상04(佛像), 비천-상(飛天像), 상본(像本), 서상07(瑞像), 석인-상(石人像), 선수-상01(船首像), 성모-상(聖母像), 성상11(聖像)②, 소상04(小像), 신상03(神像), 여성-상(女性像)①, 영상09(靈像), 우상04(偶像)①, 인물-상(人物像), 입상03(立像), 전신-상(全身像) 좌상04(坐像), 착의-상(着衣像), 편립-상(偏立像), 험상03(險像), 흉상03(胸像)
---------------------------	-------	-------	-----------------------------------------------------------------------------------------------------------------------------------------------------------------------------------------------------------------------------------------------------------------------------------------------------------------------------------------------------------------------------------------------------------------------------------------------------------------------------------------------------------------------------------------------------------------------------------------------------------------------------------------------------------------------------

실제 재료를 사용해 만들거나 그려낸 실물 형상	像-1-2	그린 형상	군상03(群像)②, 도상07(圖像), 성상11(聖像)①, 수상24(繡像), 영상05(影像)①, 유상14(遺像), 자화-상02(自畫像), 장군-상(將軍像), 초상03(肖像)①, 화상08(畫像)①
	像-1-3	형상	상형06(像型), 진상05(眞像), 형상04(形象/形像)①, cf) 존상02(尊像).
감각(마음)을 통해 떠올린 (실물 같은) 형상	像-2-1	감각을 통해 떠오르는 형상	가상06(假像)①, 물상02(物像)①, 상상07(想像), 심상04(心象/心像), 음상02(音像), 잔상03(殘像)①, 직관-상(直觀像), 초상03(肖像)②, 허상03(虛像)①, 형상04(形象/形像)②, 환상03(幻像)
	像-2-2	마음속에 그려보는 형상	남성-상(男性像)②, 여성-상(女性像)②, 인간-상(人間像)①, 자아-상(自我像), 미래-상(未來像), 세계-상(世界像)
(광)선이나 점이 서로 교차하는 방식 등을 통해 맺힌 상	像-3-1	【물리】 빛의 굴절에 의해 맺힌 상	거울-상(-像)=좌우-상(左右像), 거짓-상(-像), 경상12(鏡像), 결상(結像), 복상11(複像), 사상21(寫像)①, 송상03(送像)[cf)송상-기02(送像機)], 수상-기02(受像機), 화상08(畫像)①, 실상03(實像), 영상01(映像), 영상05(影像)②, 왜상-경(歪像鏡), 이중-상(二重像)①, 허상03(虛像)②
	像-3-2	【물리】 렌즈를 통해 인화지에 현상된 상	사상21(寫像)②, 잠상02(潛像), 해상-도(解像度), 현상06(現像)[cf) 반전^현상(反轉現像), 감력^현상(減力現像)]
	像-3-3	【수학】 대응하는 상	사상21(寫像)③[cf) 동형^사상(同型寫像), 등각^사상(等角寫像)], 식상07(蝕像), 원상03(原像), 정립-상(正立像), 도립-상(倒立像),
	像-3-4	【천문】 관측된 천체의 상	월상02(月像), 시상10(視像), 상^확대(像擴大)
	像-3-5	【광물】 결정(구조)	가상06(假像)②, 간섭-상(干涉像), 동질^이상(同質異像), 반-면상(半面像), 상-평면(像平面), 완면-상(完面像), 유질-동상(類質同像), 이극-상(異極像), 이질-동상(異質同像), 타상02(打像)
기타	像-4-1	얼굴 모습	거상04(巨像), 면상03(面相/面像), 용상06(龍像)
	像-4-2	(기운이) 겹으로 드러난 모양	기상07(氣像)

한국어 어휘에서의 像은 주로 인위적으로 제작하거나 그려낸 실물 형상을 가리키며([像-1]), 의미가 확장되어 시각을 통해 감지되거나 마

음에서 실물처럼 떠오르는 형상([像-2])도 가리키게 되었다. [像-2]와 [像-3]의 의미는 현대 한국어 어휘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분화되어 사용되었다. 특히 [像-3]에서 현미경이나 사진기 등 과학 도구를 사용하거나 과학적 관찰과정을 통해 顯現하는 사물의 형상을 가리키는 것은, 相·狀 象에는 없는 용법이라 할 수 있다. 그 외 극히 부분적으로 사람의 얼굴 모습이나 이에서 파생된 겉모습을 가리키는 용례가 보이는데 이는 相과 혼용된 경우라 할 수 있다([像-4]).

이상에서 相 狀 象 像이 포함된 한국어 어휘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근거하여 相 狀 象 像이 지닌 의미변별 내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의미변별 내용	相	狀	象	像
외부로의 顯現性	+	+	+	+
순우리말과의 결합	+	-(+) ¹⁸⁾	-	+
외래어와의 결합	-	+	-	-(+) ¹⁹⁾
동작성·진행성·변이성	-	+(순간적, 일시적)	+(규칙적, 계통적)	-
전체성·포괄성	+	-	+	-
내부 본질과의 관련성	+	-	+	-
길흉의 암시성	+	-	+	-
(사람의) 얼굴 용모	+	-	-(+)	-(+)
불교적 색채	+	-	-	-
천체(자연) 현상	-	-	+	-
인위적 제작성	-(+)	-(+)	-	+
감각으로 감지되는 모습	-	-	+	+
실물과 같은 모습	-	+	-	+
(광)선·점의 교차·굴절로 맺힌 상	-	-	-	+
비실체성·추상성	-(+)	-	-	-(+)
전형성·모델	-	-	-	+

<표 5>를 통해, 우리는 相·狀·象·像은 서로 공통된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다른 것과 공유하지 않는 고유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에 相·狀·象·像이 포함된 몇 가지 동음유 의어를 들어 의미를 변별해보도록 한다.

	『표준국어』		의미 변별
1	실상01(實狀)	『실상을 파악하다 ²⁰⁾	(일이) 실제 발생해 진행되고 있는 상태·상황
	실상02(實相)	『인생의 실상/북한의 실상	(일·사물의 본연·본질이 바깥으로 드러난) 실제 양상
	실상03(實像)		(렌즈나 거울에) 실제 맺힌 상(像)
2	심상01(心狀)	『심상이 어지럽다	마음(에서 현재 일어나는) 상태 [변화의 과정 중 현단계 상태에 초점]
	심상02(心相)	『심상이 곱다.	마음에 나타나 있는 양상(‘불교’적 색채) [본질에 대응되어 현현되는 모습에 초점]
	심상04(心象/心像)	『공감각적 심상	마음에 떠오르는 감각적인 인상(印象) [감각적으로 포착되는 모습에 초점]
3	험상01(險狀)	『날씨가 험상하니 길을 떠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날씨의 거칠고 험한 (진행) 상태
	험상02(險相)	『험상을 짓다	거칠고 험한 얼굴 모습·표정
	험상03(險像)		거칠고 험한 모습을 새긴 조각상.
4	현상03(現狀)	『현상을 유지하다	현재 (진행되는 과정 중에 나타난) 상태·상황
	현상04(現象)	『열대야 현상/핵가족화 현상	나타나서 지각할 수 있는 모습
	현상06(現像)	『필름 현상	사진기 따위에 찍혀(맺혀) 나타난 상(像)
5	형상02(形狀)	『만일 조금만 더 밀리면 바다에 빠질 형상이다.	(일어나고 있는) 모습 [動的인 모습]

18) 해당 의미항목에 대한 용례가 존재하나 극소수인 경우 괄호로 표기하였다.

19) 『표준국어』에 외래어와 결합된 표제어는 없으나 『연세한국어』에 ‘비너스상’이 ‘점미사 -상(像)’의 용례로 제시되어 있어 (+)표기를 해두었다.

	『표준국어』		의미 변별
5	형상03(形相)	『병수는 언젠가 삼월에게 모진 사매질을 가했던 어머니의 무서운 형상을 생각한다.	얼굴 표정 등에 풍겨나는 모습 [얼굴 표정]
	형상04(形象/形像)	『조각으로 풍만하게 표현된 인간의 형상	(감각적인 형태로 나타난) 모습 [감각적 인상]

Ⅲ. 相·狀 象·像과 관련된 사전 표기와 의미정의

본 장에서는 상기 相·狀·象·像이 지닌 의미의 공통성과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4종의 국어사전에 제시된 相·狀·象 像과 관련된 몇 가지 어휘표기 및 의미 설명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1. 異形 중복 표기에 대한 규범화의 필요성

相 狀 象 像이 네 글자가 ‘모습’ ‘모양’에서 유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특정 어휘에서 서로 통용되어 사용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듯하며, 언어 사용자가 한자의 本義와 달리 사용한 표기가 일반화되면 그 형태를 쓰는 것도 납득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만약 아직 정착되지 않고 혼재하는 단계라면 표기방식을 규범화하는 것도 필요한 작업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문제 의식으로 아래에 몇 가지 관련 한자어의 표기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표준국어』의 ‘일러두기’에서는 ‘어원’에 ‘/’ 표기로 열거된 어형은 ‘이 형태나 공존하는 어형’이라고 소개하였다. 相·象·像·狀과 조합된 복합어 가운데 ‘/’ 표기가 된 표제어는 6개가 조사된다. 이에 대한 『연세한

20) 예문은 『표준국어』에 제시한 것을 轉載하였다.

국어』와 『고대한국어』의 수록 표제어 형태는 다음과 같다.(미수록의 경우 ✓으로 표기)

	『표준국어』	『고대한국어』	『연세한국어』	『속뜻사전』
1	면상03(面相/面像)	면상3(面相/面像)	면상2(面相)	면상(面相)&면상(面像)
2	사상10(事狀/事相)	사상9(事狀/事相)	✓	✓
3	사상20(寫象/寫像)	사상11(寫像)	✓	✓
4	심상04(心象/心像)	심상1(心象/心像)	심상1(心象·心像)	심상(心象)
5	형상04(形象/形像)	형상1(形象/形像)	형상(形象)	형상(形象)
6	상모01(相貌/狀貌)	상모2(相貌/狀貌)	✓	✓

‘면상03(面相/面像)①’과 ‘상모01(相貌/狀貌)’의 의미는 『표준국어』에서 ‘얼굴의 생김새’로 제시되어 있다. 相 狀·象 像 가운데 相이 ‘얼굴 모양’을 나타내는 한자어가 가장 많으며 결합도 다양하고, 像은 비록 ‘얼굴’의 모습으로 쓰인 용례가 있으나 극소수이다. 따라서 ‘상모01’은 ‘相貌’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면상03(面相/面像)’의 경우 『속뜻사전』에서와 같이 ‘얼굴의 생김새’는 ‘面相’으로, ‘얼굴을 본뜬 상’은 ‘面像’으로 구분해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사상10(事狀/事相)’의 의미에 대해 『표준국어』는 ‘=사태06(事態)’로 제시하였는데, ‘사태06(事態)’는 ‘일이 되어 가는 형편이나 상황. 또는 벌어진 일의 상태’를 가리킨다. <표 5>의 의미변별내용을 따르면 相자는 일반적으로 ‘일이 되어 가는’·‘동작성·진행성·변이성’의 의미를 내포하지 않으므로 狀자로 표기하는 것이 더 합당할 듯하다.

‘사상20(寫象/寫像)’·‘심상04(心象/心像)’·‘형상04(形象/形像)’의 경우 象과 像이 병기되어 있는데, 이는 ‘감각경험을 통한 형상’ 의미를 공통적으로 지니는 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象과 像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줄곧 혼용되어 왔다. 국가주관부문이 한자표기를 통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다는 동시표기 현상이 적게 나타나는 중국에서도, ‘想象’과 ‘想像’ 표기에 관해서는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코퍼스의 사용빈도가 서로 비슷한 까닭에 결정하기 어려워 2000년 회의에서 ‘想象(像)’으로 병기하는 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想像’을 표준표기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국어 어휘에서도 像과 象을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주나 ‘사상20(寫象/寫像)’·‘심상04(心象/心像)’·‘형상04(形象/形像)’ 등에서는 여전히 병기현상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우리는 象과 像을 구분해 표기하는 관련 어휘를 참고할 수 있다. 가령 ‘마음속에 새겨지는 느낌이나 모습’을 가리키는 ‘인상06(印象)’은 象으로만 표기된다. ‘좋은 인상’·‘무뚝뚝한 인상’²¹⁾ 등은 주로 실물 또는 실물과 같은 모습을 그려내기 어려우므로 象을 쓰는 것이 합당하다. 한편 ‘상상07(想像)’은 像으로만 표기되었는데 이는 실제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모습을 생각하는 것에서 ‘그림’의 구체성·실물성에 초점을 두어 표기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비추어볼 때, ‘형상04(形象/形像)’의 경우 마음 또는 감각을 통해 그려지는 모습도 나타내지만 ‘내면 형상’·‘초월적인 형상’·‘가련한 형상’ 등으로 구체적인 실물로 그려내기 어려운 모습들도 나타내기에, 『연세한국어』와 『속뜻풀이』와 마찬가지로 ‘形象’으로 표기하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심상04(心象/心像)’의 경우 『연세한국어』는 象·像을 병기하였지만 ‘形象’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속뜻풀이』에서와 같이 포괄적인 범위에서 ‘心象’으로 표기하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사상20(寫象/寫像)’의 경우에는 『고대한국어』에서는 『표준국어』의 ‘사

21) 이 예시문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http://krdic.korean.go.kr/mainAction>) 참조

상20(寫象/寫像)'(【심리】)과 '사상21(寫像)'(【물리】 , 【수학】)에 대해 '사상11(寫像)' 한 항목으로 통합하였다. 이 예에 의거해볼 때 『고대한국어』는 '심상' '형상'도 '心像' '形像'으로 통일해야 할 듯하나 '심상04(心象/心像)'·'형상04(形象/形像)'으로 표기하여 통일 기준이 불명확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각 또는 사고에 의하여 과거의 대상이 의식에 다시 나타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경우 '寫象'으로 표기하는 것이 합당할 듯하고, 물리 수학 분야에서의 '점 (광)선 등이 모여 맺힌 상 내지 대응되는 상'은 像만 지니는 의미자질이므로 '寫像'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합할 듯하다.

2. 명사 뒤에 결합된 相·狀·像에 대한 의미 규범화의 필요성

기준에 一音節 漢字語의 접사적 성격에 대해 부분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으나 相·狀·像을 중심으로 다루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된다.²²⁾ 이에 본 절에서는 相 狀 像이 명사 뒤에 접사처럼 결합되어 '상태' '모양'을 나타낼 때 이들의 의미 분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표준국어』에서는 명사 뒤에 결합된 狀을 접사로 제시하고 像의 경우는 명사로 제시하였으며 相의 경우는 따로 제시하지 않아 명사 뒤에 결합된 相·狀·像의 문법적 기능이나 의미가 명확히 분별되지 않는다.²³⁾ 한편 『연세한국어』에서는 명사 뒤에 결합하는 相·狀·像을 모두

22) 노명희(2005/2007)·양명희(2008)·陳志法(2013) 참조.

23)

	품사	조어 구조	의미	예문
상09(相) ②	명사	-	각 종류의 모양과 태도	-
상27(狀)	접사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모양' 또는 '상태'의 뜻을 더함	『계단상/나선상/원반상/포도상.
상23(像)	명사	1.(일부 명사 뒤에 붙어)	~의 가장 바람직한 또는 대표적인 모습을 나타냄	『교사상/어머니상.
		2.(조각이나 그림의 뒤에 붙어)	~의 조각이나 그림을 나타냄	『성당의 성모 마리아상.

접사로 정의하고 각각의 의미 및 결합 용례를 제시하였다.

접미사	조어 능력	의미	예문
-상9(相)	(일부 추상명사 뒤에 붙어)	무엇의 전체의 모양이나 상태를 나타냄	사회상/발전상/ 미래상/타락상
-상11(狀)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모양이나 상태를 나타냄	나선상/포도상구균/ 방사상
-상13(像)	1.(일부 명사 뒤에 붙어)	~의 가장 바람직한 또는 대표적인 모습을 나타냄	교육자상/지도자상/ 어머니상
	2.(조각이나 그림의 뒤에 붙어)	~의 조각이나 그림을 나타냄	반신상/성모상/ 비너스상

한편 『한국어기초사전』(2012)에서는 『표준국어』를 따라 狀만을 접사로 제시하고 의미는 ‘모양 또는 상태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풀이하였으며 ‘계단상·나선상·방사상·원반상’을 용례로 제시하였다. 명사 뒤에 결합한 相·狀·像의 문법 기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바 본 절에서는 본고의 논의 대상인 의미변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명사+相’의 경우 본고 <표 1>의 [相-2]에서와 같이 ‘대상 전반에 대해 전체적이고 표면적으로 관찰되는 양상’을 가리키며 이는 『연세한국어』에서 제시한 의미 범위와 유사하다. 그러나 용례로 제시된 ‘미래상’은 ‘그러보거나 떠올리는 모습’으로, ‘관찰되는 양상’이 될 수 없으므로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실제 사전 표기도 ‘未來像’으로 ‘-相’의 용례로 제시되기 어렵다. 또한 ‘명사+相’ 가운데는 相의 의미와 관련된 ‘毒蛇相·餓鬼相·말相 주걱相’ 등 얼굴모습을 나타내는 용례가 적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의미 항목 제시의 필요성이 있다.²⁴⁾

24) 본 절에서는 ‘명사+相’의 구조를 중심으로 의미변별을 하였으므로 ‘죽相’·‘울相’·‘五萬相’ 등 ‘기타 품사/문장성분+相’의 구조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였다.

‘명사+狀’에 대한 『연세한국어』의 의미 제시는 본고 <표 2>의 [狀-1] 부분에 국한되며 [狀-2-2]에 제시된 ‘문란-상(紊亂狀)·불행-상(不幸狀)·비참-상(悲慘狀)’의 의미 등이 ‘명사+相’의 구조와 구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체성·통합성·靜的 구도에서의 포착성과 관련된 相의 의미와 대별되는 부분성·동적 현장성·구체묘사성과 관련된 의미를 고려하여 변별을 고려할 수 있을 듯하다.

‘명사+像’의 경우 『연세한국어』에서는 ‘조각이나 그림’을 나타내는 의미 범위(<표4>의 [像-1-1~2]) 외에 ‘~의 가장 바람직한 또는 대표적인 모습을 나타냄’이라는 의미항목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의미항은 의미변별이 뚜렷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겠으나 두 번째 의미항은 그렇지 않다. 해당하는 복합어 가운데 ‘人間像’의 의미 정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준국어』	①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의 이상적 인간상이 있다.
	②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모습.	『이러한 여러 가지 해석이 모두 철인 소크라테스의 인간상의 일면을 들어서 말한 것에 불과하다.
『고려대한국어』	①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	『바람직한 인간상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②한 사람의 전인격적인 모습.	
『연세한국어』	사람의 생김새, 성격, 행동, 사상 등 모든 것을 포함한, 사람 전체의 모습이나 상태.	『동양 문화의 인간상은 맹자가 말하는 ‘대인’, ‘대장부’와 같은 것이다.
『기초한국어사전』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	『이상적 인간상/주체적 인간상/복잡한 인간상/새로운 인간상/자유로운 인간상/인간상을 제시하다/바람직한 인간상
	2.외모, 성격, 사상 등을 포함한 사람 전체의 모습이나 상태.	『인간상의 단면/인간상의 일면/인간상의 한 모습/인간상을 반영하다/인간상을 보이다

‘人間像’의 용례는 중국어에는 보이지 않으며 일본어에 보이므로 일본어의 영향을 받아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자 像이 지닌 의미에 의거해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일본어의 정의와 말뭉치 용례를 살펴 고찰할 필요가 있다.

『デジタル大辭泉』에서는 ‘人間像’을 ‘性格・容貌・行動・思想などのすべてを含めたその人の姿.’로 정의하고 ‘社會に期待される’로 용례로 제시하였으며, 『大辭林(第三版)』에서는 의미항을 두 개로 나누어 ‘①人間としてあるべき姿, ②外見・性格・思想・行爲などすべてを含めた全人格的な姿’로 제시하였다.²⁵⁾ 『표준국어』·『고려대한국어』·『기초한국어사전』에서는 『大辭林(第三版)』에서와 같이 두 가지 의미항으로 제시하였고 『연세한국어』에서는 『デジタル大辭泉』에서와 같이 하나의 의미항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용례를 통해 사전적 의미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기초한국어사전』 사전에서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 의미와 관련한 제시된 용례 가운데 ‘복잡한 인간상’은 의미항과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세종’ 말뭉치와 국립국어원 말뭉치를 검색하면 ‘人間像’은 주로 ‘바람직한’·‘이상적인’·‘주체적’ 등 긍정 의미를 지닌 관형어와 함께 쓰이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타율적이고 노예적인 인간상’, ‘야비한 인간상’, ‘가난에 허덕이는 절망적인 인간상’, ‘악의 인간상’, ‘이중 구속(double bind)의 덫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간상’ 등 부정 의미의 관형어와 결합되는 용례도 조사되므로 기존 사전에서 가치 긍정적 의미로 제시한 의미항에 포섭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人間像’의 의미항과 연관된 맥락에서 ‘女性像②’과 ‘男性像②’의 용

25) 상기 내용은 kotobank(<http://kotobank.jp/>) 웹사이트에서 제공한 자료를 轉載한 것이다. 각 예문의 원출전은 지면상 생략하도록 한다.

례를 살펴보면 기존 사전의 의미항으로 제시된 ‘갖추어야 할 모습’ 외에 ‘중속적인 여성상’, ‘피학적 여성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여성상과 보호자 혹은 가해자인 남성상’ 등 가치중립적 또는 가치부정적 의미의 수식어와 결합한 용례들이 등장한다. 이는 ‘女性像②’과 ‘男性像②’이 가치 긍정적 의미의 수식어와만 결합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즉 像 자체는 ‘대상과 관련해 떠오르는 상징적 이미지’를 나타낼 뿐이며 수식어와의 관계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 중성적 요소를 나타내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리하면 ‘人間像’·‘女性像②’·‘男性像②’ 등 ‘명사+像’ 구조의 복합어는 긍정적인 면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개이나 중성적 내지 부정적인 면을 가리킬 수도 있으므로 이를 포함한 의미항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像과 결합한 복합어는 구체적으로 묘사 가능한 시각화된 모습이나 상태라기보다는 특정 인물 내지 특정 부류의 인간의 행위, 사상 등을 통합적으로 그려볼 때 떠오르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므로 『연세한국어』의 정의가 합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관련된 어휘의 의미항을 수정하면 다음과 같다.

- 人間像: 특정 부류에 해당하는 人間の 생김새 행동 사상을 통합적으로 그려볼 때 떠오르는 상징적인 이미지
- 女性像②, 男性像②: 특정 부류에 해당하는 여성/남성의 행위·사상 등을 통합적으로 그려볼 때 떠오르는 상징적인 이미지
- 自我像(self-image): 자신의 역할이나 존재를 통합적으로 그려볼 때 떠오르는 상징적인 이미지
- 世界像: 특정 세계에 대해 통합적으로 그려볼 때 떠오르는 상징적인 이미지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고 한자 의미를 참고해 相·狀·像의 접사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분별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의미	의미 분별	예문
-相	①얼굴 생김새	얼굴 모습	毒蛇相/餓鬼相/말相/주걱相
	②대상 전반에 대해 관찰되는 전체적인 양상	실제 관찰된 양상 전체성·통합성	發展相/墮落相 社會相/時代相
-狀	①구체 사물의 모양	실물형상성	螺旋狀/葡萄狀球菌/波紋狀
	②진행 과정이나 배경과 관련된 상황	현장진행성 상황묘사성	紊亂狀, 不幸狀, 悲慘狀
-像	①조각이나 그림	제작성 (본떠서 만들어낸 것)	半身像/聖母像/비너스像
	②특정 대상 부류를 통합적으로 그려볼 때 떠오르는 상징적인 이미지	상징적인 이미지 비실체성	人間像/世界像/自我像/女性像/男性像/教育者像/指導者像/어머니像/未來像

IV. 결론

이상에서 한국어 어휘의 형태소로 쓰인 相·狀 象·像이 ‘모습’·‘형태’·‘상태’의 의미로 활용된 예를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미 분별과 사전상 표기 및 의미제시의 규범화를 시도하였다.

첫째, 相 狀·象·像의 의미 분별 작업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實狀·實相·實像’·‘心狀·心相·心象/心像’·‘險狀·險相·險像’·‘現象·現像·現狀’·‘形相 形狀·形象(/形像)’의 의미를 변별하였다.

둘째, 표제어 한자 중복표기와 관련하여, 『표준국어』의 ‘면상03(面相/面像)’·‘사상10(事狀/事相)’·‘사상20(寫象/寫像)’·‘심상04(心象/心像)’·‘형상04(形象/形像)’·‘상모01(相貌/狀貌)’ 등은 ‘面相’·‘事狀’·‘心象’·‘形象’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寫象’과 ‘寫像’으로 항목을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相 狀·像이 접사적 용법으로 쓰인 것과 관련하여서는 말뭉치 자료에 의거해 ‘世界像’·‘人間像’·‘女性像/男性像’의 의미향을 가치공정

적 서술에서 가치중립적 서술로 조정하고, ‘社會相’·‘時代相’의 ‘相’과 의미자질을 분별하고자 하였으며 『연세한국어』에서 든 용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가 한국어 어휘의 형태소로 쓰인 同音類義語 相 狀·象·像의 분별작업을 통해 한국 한자어 어휘에 사용된 同音類義語 형태소의 이해도와 변별성을 제고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參考文獻

- kotobank 웹사이트(<http://kotobank.jp/>). (2014. 6. 20. 검색)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2009), 『고려대 한국어사전』 daum사전 웹사이트 (2014. 6. 20. 검색)
- 국립국어원(1999/2008), 『표준국어대사전』 웹사이트. (2014. 6. 1~20. 검색)
- 국립국어원(2012), 『한국어기초사전』 웹사이트(<http://krdic.korean.go.kr/mainAction>)
- 시범운영. (2014. 6. 20. 검색)
- 날말어휘정보처리연구소, 날말창고, <http://www.wordnet.co.kr/Default.aspx>. (2014. 6. 20. 검색)
- 노명희(2005/2007), 『현대국어 한자어 연구』, 서울(한국), 태학사.
- 백문식(2012), 『우리말 형태소 사전』, 서울(한국), 박이정.
- 廉光虎·位靑(2005), 『한중한자어비교사전』, 서울(한국), 역락.
- 許慎 著, 段玉裁注(1997), 『說文解字注』, 上海(中國), 上海古籍出版社.
- 王鳳陽(1993/2011), 『古辭辨(增訂本)』, 北京(中國), 中華書局.
- 김양진(2013), 「國語의 同字同義異音 漢字語 研究」, 『語文論集』 제41권제1호, 서울(한국), 한국어문연구회.
- 이광호(1998), 「국어 의미변별 사전을 위한 접근」, 『睡蓮語文論集』 제24집, 부산(한국), 부산여자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수련어문학회.
- 문금현(1989), 『現代國語 類義語의 研究-類型分類 및 意味分析을 中心으로-』, 서울(한국),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문금현(2004), 「한국어 유의어의 의미 변별과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제15집, 서울(한국),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양명희(2008), 「二音節 漢字語 뒤에 오는 一音節 漢字語에 대하여」, 『語文研究』 제36권제3호, 서울(한국),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최은규(1985), 『現代 國語 類義語의 意味構造 研究』, 서울(한국),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劉世餘·王學凱(2006), 「非名詞義의 “象”與“像”之分化和使用」, 『平原大學學報』 第23卷第1期, 廣西(中國), 廣西大學文傳院.
- 李智(2008), 「“象”·“像”·“相”三字用法混亂的現象、原因及其規範」, 『遼寧教

- 育行政學院學報』第25卷第3期, 遼寧(中國), 遼寧教育行政學院.
- 張誼生(2008), 「當代漢語摹狀式“X狀”探微」, 『語言教學與研究』2008年第1期, 北京(中國), 北京語言大學.
- 全國科學技術名詞審定委員會·國家語言文字工作委員會(2001), “象”與“像”在名詞義上的用法有新界定——關於“象”與“像”用法研討會會議紀要, 『科技術語研究』2001年第4期, 北京(中國), 全國科學技術名詞審定委員會.
- 陳志法(2013), 『韓國語漢字詞綴與漢語詞綴的對比』, 延邊(中國), 延邊大學博士學位論文.

■ 中文摘要

韓語漢字詞詞素中同音同義字相・狀・象・像辨析

金秀炅*

本研究的主要目的在於辨別韓語詞匯里既是同義關係又是同音關係的相、象、像、狀的詞義，以提高韓語詞匯之間的語義辨別性。

例如“現象”、“現像”、“現狀”與“形相”、“形狀”、“形象(/形像)”等，在韓語里頭，不僅讀音相同，意思也相似。而“面相/面像”、“事狀/事相”、“寫象/寫像”、“心象/心像”、“形象/形像”、“相貌/狀貌”等詞條則卻將兩個同義關係的漢字都標在一起。並且對於“世界像”、“人間像”、“女性像”等詞里用“像”，而“社會相”、“時代相”則用“相”的不同情況，光靠《詞典》說明很難做出分辨。為了使韓國語使用者便於使用與理解，這些部分需要有条理地去分析及考察。

以對如上問題的思考作為基礎，本研究調查同義字“相、象、像、狀”在與其它詞結合而成的表示“樣子”、“形狀”、“狀態”等義的韓國語漢字詞匯，而在此基礎上試圖考察韓語詞匯里漢字同義詞之間所存在的語義特徵。

關於漢字同義詞的語義及運用特徵，在以往古代漢語詞匯研究領域里已有不少成果。在現代漢語詞匯研究領域里也在深化同義詞（或近義詞）的研究。因此，本研究過程中要借鑒中國詞匯里同義詞的研究內容。至於敘述過程中受日本影響的一些詞匯，選擇性地參考了日本國語詞典的定義。

通過研究得出的主要內容如下：

先對相、狀、象、像的詞義做出細緻的分辨，並以此為基礎，對“實狀、實相、實像”、“心狀、心相、心象/心像”、“險狀、險相、險像”、“現象、現像、現狀”、“形相、形狀、形象(/形像)”等個別詞匯的語義特徵進行分析。

其次，指出《標準國語詞典》標題語中並記漢字的‘面相/面像’、‘事狀/事相’、‘心象/心像’、‘形象/形像’、‘相貌/狀貌’，並提出統一標記為‘面相’、‘事狀’、‘心象’、‘形象’的方案。至於‘寫象/寫像’的標記，則提出將‘寫象’和‘寫像’分項立標題語的方案。

最後，分析語料庫中相、狀、像用做後綴語時的詞義和搭配情況，提出‘世界像’、‘人間像’、‘女性像/男性像’在《詞典》上的含肯定價值的敘述應糾正為價值中立性敘述。

* 高麗大學校 中國學研究所 Post-doc / E-mail : dansill@hanmail.net

述的看法, 并对其与‘社会相’、‘时代相’之‘相’的词义进行分辨, 并指出《延世韩国语词典》的‘-相’、‘-像’条中所引用例之误.

希望本研究对韩语词汇中同义同音词素相、状、象、像词义的有效分辨和使用有一定的参考.

關鍵詞

韩国汉字词, 同音类义语, 相·象·像·状, 语义特征, 汉字词词素

Abstract

A Study on 相, 象, 像, 狀 as Morphemes Having Homophonic and Synonymic Features in the Sino-Korean Words

Kim, Su-kyung *

This essay focuses on examining the semantic features among homophonic synonyms: 相, 象, 像, 狀 in Sino-Korean words.

There are Sino-Korean words like 現象, 現像, 現狀, and 形相, 形狀, 形象(/形像) which have not only same pronunciation but also similar meaning. Not only that, the Sino-Korean words like ‘면상03(面相/面像)’, ‘사상10(事狀/事相)’, ‘사상20(寫象/寫像)’, ‘심상04(心象/心像)’, ‘형상04(形象/形像)’, ‘상모01(相貌/狀貌)’ have two ways of presenting Chinese Characters to one word. There is another issue, too: the Sino-Korean words like ‘세계-상(世界像)’, ‘인간-상(人間像)’, ‘여성-상(女性像)’ take ‘像’ as their morpheme, while ‘사회-상(社會相)’, ‘시대-상(時代相)’ use ‘相’ instead of ‘像’. These confusing phenomena represent that the use of homophonic synonyms in Sino-Korean words is complicated. That is the part where needs our in-depth analysis.

Based on the above recognition, this essay surveys the most Sino-Korean words containing 相, 象, 像, 狀 as a morpheme that represents the meaning of shape, form, or situation, shown in the Korean Standard Unabridged Dictionary. We examine whether their semantic features have certain differences or not, and if they have, we try to find a way to present them more effectively.

The study of semantic and syntactic aspects of Chinese Characters in Chinese words has been accumulated in the field of lexicology of Classical

* A post-doc at Korea University Chinese Studies Institute /

E-mail : dansill@hanmail.net

Chinese and modern Chinese. we consult these research results. In addition, we also consult the Japanese dictionary. The main contents the essay are as follows:

First, we analyze the meaning differences of ‘實狀, 實相, 實像’, ‘心狀, 心相, 心象/心像’, ‘險狀, 險相, 險像’, ‘現象, 現像, 現狀’, ‘形相, 形狀, 形象(/形像)’, based on the analysis of semantic features of 相, 象, 像, 狀.

Second, as regards the double remarks to one word such as ‘면상03(面相/面像)’, ‘사상10(事狀/事相)’, ‘심상04(心象/心像)’, ‘형상04(形象/形像)’, ‘상모01(相貌/狀貌)’ registered in Korean standard unabridged dictionary, we suggest to standardize them in one remark as ‘面相’, ‘事狀’, ‘心象’, ‘形象’, or to divide one[‘사상20(寫象/寫像)’] into two[‘寫象’ and ‘寫像’].

Third, as regards suffixal usage of 相, 狀, 像, we adjust the semantic unit of ‘世界像’, ‘人間像’, ‘女性像/男性像’ from a value-positive description to a value-neutral one, and try to differentiate the semantic feature between ‘相’ in ‘社會相’, ‘時代相’ and ‘像’ of ‘世界像’, ‘人間像’, ‘女性像/男性像’.

We expect that this study could contribute to enhance degree of understanding and discrimination capacity about morphemes as homophonic synonyms in Sino-Korean words.

Key Words Sino-Korean words, homophonic synonyms, 相, 象, 像, 狀, semantic feature, morpheme of Sino-Korean words

논문투고일	2014년 10월 02일
논문심사일	2015년 01월 09일
심사완료일	2015년 01월 21일

